

- 해당 자료는 시험 당일 **40분 정도** 공부할 것을 가정하고 제작 하였습니다.
 - ⇒ 감독관에 따라 08시 10분부터 학습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07시 30분부터는 해당 자료로 학습을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 이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곧 시작될 시험에서 **‘나는 이렇게 읽고 풀 것이다.’**를 상기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 더불어, 해당 자료 외에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영역별로 1~2지문 정도씩 더 챙겨서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 ㉡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4.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4.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4.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 후보	42%	38%	39%
	B 후보	32%	37%	38%
	C 후보	18%	17%	17%

-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에 모두 위배되겠군.
-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가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내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편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걸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②더구나 이리루 들어 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③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④'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⑤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⑥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⑦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2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2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3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3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약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차'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변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던 목동이었던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연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풀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초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울 적에 말춤으로 창자를 줄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데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 나라의 수도.

18.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의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㉔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㉕ 오늘도 여행가 안○○ 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행가 :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 ㉖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㉗ 실시간 댓글로 6789 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

여행가 : ㉘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가 : (테이블에 오르꼴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꼴입니다.

진행자 : 실시간 댓글 창에 오르꼴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작고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뵈게요.

(나)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㉙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㉚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새달 :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와 같이 등대 스탬프가 없는 곳도 있다는데요. 그 등대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군요.

↳ **알콩** : 저는 일반적인 등대와는 달리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사슴** : 알콩 님 말씀과 같이 스탬프가 있긴 해요. 행복도 등대는 행복도 역사관 내에, 기쁨향 등대는 선착장 앞에 있어요. 모두 찾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 **새달** : 사슴 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풍요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 및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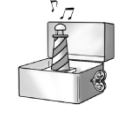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택1 하여 참가 신청하기



등대를 방문하여 스탬프 찍고 사진 촬영하기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하기



-인증은 스탬프가 아닌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
-사진에 스탬프 위치 확인

△△ 등대-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

특징 : LED 조명이 만드는 이국적인 경관
주소 : ▽▽도 ◇◇군 △△면
스탬프 위치 : 등대 앞
볼거리 : ◇◇철새 전시관, ◇◇산 전망대
먹을거리 : 전복 리면, 복어 튀김, 소금 시탕
재밌거리 : 자전거 여행, 조개 잡기 체험



-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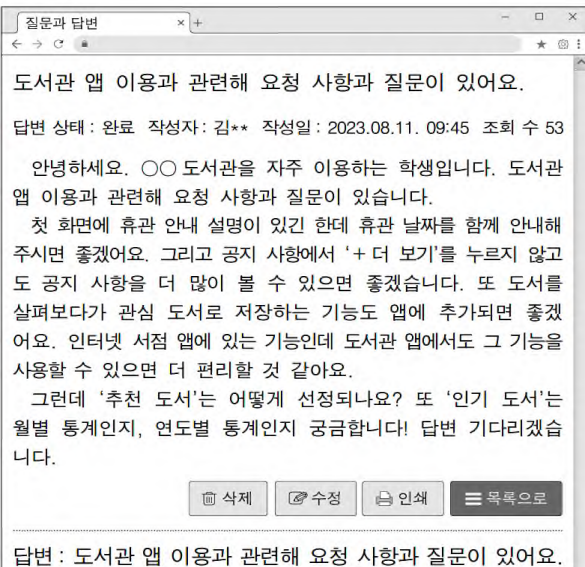
- ① ㉠ : 종결 어미 '-버니다'를 사용하여, 방승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② ㉡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 ③ ㉢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④ ㉣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44~45] (가)는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서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8.11. 15:53

안녕하세요. ○○ 도서관 사서입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관 안내에 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앱의 '추천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합니다. '인기 도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 도서'의 '+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사서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고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의 선정 방식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

1. <보기>의 [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긱간, 셋방, 숫자, 찻간, 뿃간, 횃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깅]
㉡	전세방[전세뻥]	아랫방[아래뻥]
㉢	버섯국[버섯꺅]	조갯국[조개꺅]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댄말]
㉤	나무껍질[나무꺅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어]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터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위라]

3.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과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품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실현된다. 품사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 ㉠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 ㉡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
- ㉢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 ㉣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 ㉤ 다람쥐 세 마리가 나무를 오른다.

- ① ㉠ : 명사가 격 조사와 결합해 목적어로 쓰였다.
- ② ㉡ :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 ③ ㉢ :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 ④ ㉣ :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 ⑤ ㉤ :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6.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물 떡볶이’ 만드는 법

- 떡을 물에 담궈 둔다. (㉠ 담가)
-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거르서, 육수를 준비한다. (㉡ 걸러서)
- 육수에 고추장, 같은 마늘, 불린 떡, 어묵을 넣는다. (㉢ 간)
- 하얗던 떡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젓어 익힌다. (㉣ 저어)

- ① ㉠ : 예쁘-+-어도 → 예뻐도
- ② ㉡ : 푸르-+-어 → 푸르러
- ③ ㉢ : 살-+-니 → 사니
- ④ ㉣ : 동그랳-+-아 → 동그래
- ⑤ ㉤ : 굿-+-은 → 그은

7.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8.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될 계획 세우기가 ㉤실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 ‘ㄷ, ㅌ’ 뒤에 모음 ‘이’나 반모음 ‘ㅣ’가 오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구개음화라 한다. 가령 ‘해돋이’는 [해도지]로 발음되고 ‘걸히다’는 [거치다]로 발음된다.

구개음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형태소 경계의 환경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걸디다’는 [견디다]로 발음된다. 둘째,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되, 뒤의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이어야 한다. 즉, ‘ㄷ, ㅌ’ 뒤에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등이 와야 한다. ‘홀이불’은 ‘홀-’과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로, ‘ㅌ’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개음화는 중세 국어에서는 치조음이었던 ‘ㅈ’과 ‘ㅊ’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무렵에 경구개음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모음 ‘이’와 반모음 ‘ㅣ’가 경구개 근처에서 소리가 나므로, ‘ㄷ’이나 ‘ㅌ’이 그것들과 만날 때 경구개음인 ‘ㅈ’이나 ‘ㅊ’으로 바뀌면 발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17세기 이전의 문헌 자료에서 구개음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18세기에는 현대와 달리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16세기에는 ‘타다[打]’로 표기된 말이

[A] 18세기에는 ‘치다’로 표기된 것이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구개음화도 발견된다. ‘걸히다’는 16세기에는 이어적기에 의해 ‘거티다’로 표기되었지만 18세기에는 ‘거치다’로 표기된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 현상이 사라졌다. 오늘날 남아 있는, 형태소 내부에서 ‘ㄷ, ㅌ’과 모음 ‘이’가 만나는 단어들 18세기에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것은, 이 단어들 19세기에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해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견디다’와 ‘느티나무’는 각각 ‘견디다’와 ‘느티나무’에서 변한 경우이다.

한편,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된 구개음화는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던 ‘치다’는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치다’는 ‘견히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9.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굳이’는 ‘ㄷ’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이므로 [구지]로 발음되었군.
- ② ‘고개를 젓히다’에서 ‘젓히다’를 [저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와는 관련 없는 현상이겠군.
- ③ ‘달날이’가 [난나치]로 발음되는 것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무렵에 모음 ‘이’가 경구개 근처에서 발음되는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이겠군.
- ④ ‘마디’가 18세기에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것은, 19세기에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해 ‘마디’에서 변한 단어이기 때문이겠군.
- ⑤ ‘무치다’와 ‘물히다’의 표기는 18세기에는 동일했으나 20세기에 만들어진 표기 규약에 의해 달라졌겠군.

10. 다음은 윗글의 [A]를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구개음화는 시기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대 국어의 ‘거치다[거치다]’, ‘갸히다[가치다]’의 ‘ㅌ’ 소리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어 지금까지 이어진 소리라고 했을 때, 아래의 문장들의 ㉠과 ㉡가 16세기와 18세기 문헌 자료에서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지혜는 두려워 (㉠) 더 업고져코
[지혜는 두려워 거칠 것이 없고자 하고]
- 罪 업시 (㉡)
[죄 없이 갸히노라.]

학생: _____ ㉠ _____

- ① 16세기라면 ㉠은 ‘거틸’, ㉡는 ‘갸히노라’로 표기되었습니다.
- ② 16세기라면 ㉠은 ‘거칠’, ㉡는 ‘가티노라’로 표기되었습니다.
- ③ 16세기라면 ㉠은 ‘거틸’, ㉡는 ‘가치노라’로 표기되었습니다.
- ④ 18세기라면 ㉠은 ‘거칠’, ㉡는 ‘가치노라’로 표기되었습니다.
- ⑤ 18세기라면 ㉠은 ‘거칠’, ㉡는 ‘가티노라’로 표기되었습니다.